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3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형산에서 바라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수평선의 모습. /뉴스시스

“추정액 1900조 가량 연내 시추작업 돌입”

140억 배럴 석유 채취 계획

경북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연내 시추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물이 확인되더라도, 첫 생산은 10년 가량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봤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선 올해 연말께부터 시추에 주력하겠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장 예상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냐는 질문에 “심해 1km에서 더 들어간다. 영일만 38~100km 범위로 확장된다”며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두 포함, 상대적으로 큰 범위”라고 답했다. 최초로 예정된 시추 지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경제성 있고 유망하다고 예상하는 부분부터 시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추 5공 이상 시추해야 규모 알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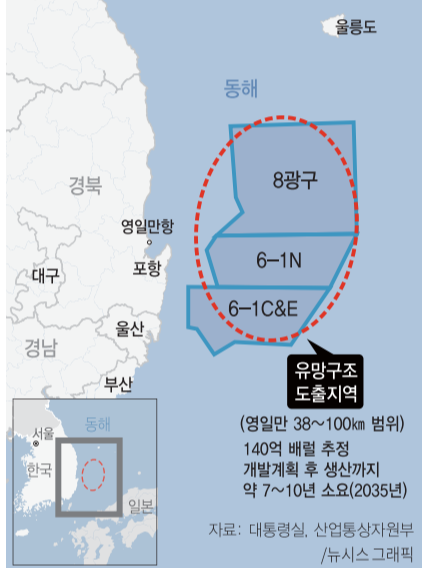
동해 가스전, 100% 국내서 인수 매장량 가치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수입물량 대체 후 남은물량 수출

기대 수익에 대해서는 “액수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는 2026년까지 우선 지속적으로 시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 5공 이상 시추를 해야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다”며 “얼마나 뚫을지는 중간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에 나오는지 따라 유동성이 있다”고도 했다.

판매가격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40억 배럴 기준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면 1조4000억 달러(1927조3800억 원)로 추정한다”면서도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부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매가격도 생산국에 연동되는 만큼 그 뒤에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가치는 현 가치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고 한다.

부존량(꺾 수 있는 양)과 관련해서는 “동해 가스전은 한국가스공사에서 100%, 즉 국내에서 인수한다”고 말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지역



다. 또 부존량을 확인하면 1일 생산량을 대략 알 수 있고, 그 이후 어느 정도 국내에 도입하고 난 뒤 해외 판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수입할 때) 장기 계약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할 물량을 대체한 뒤 남은 물량을 외국에 팔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입 대체효과와 국내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분석에 들어가면 경제성 있게 파낼 수 있는 부존량이 얼마인지 확정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거쳐 실제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오는 2035년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장량이 확인되더라도 우리에게겐 경험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술력이 부족한 만큼 해외 투자가 필수다. 다만 현재 어느 업체에서 우리 투자에 관심 있는지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시추공을 뚫어보면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다”며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국내, 리스크가 높다면 해외 투자유치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에서 석유공사가 출자하고 정부가 지원한 것을 토대로 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1공 시추 결과가 나온 후 중간 과정에서 차년도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갈 지는 확정할 수 없다. 탐사 들어간 비용도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다만, 동해 탐사에는 3억7000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SK 성장역사 곡해 유감… 진실 바로잡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유감 표명 “그룹 가치·구성원·자부심에 상처 SK·국가에 부정적 영향 없게 최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를 놓고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판결 내용을 두고서는 “SK가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한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그룹의 최고 협의기구로 매월 1회 모여 그룹 차원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 동안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대법원까지 재판 결과를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 경영과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으로서의 대외 일정 등 계획된 활동을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그는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 방향성도 밝혔다. 우선

“그린·바이오 등의 사업은 양적 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해 ‘AI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CEO는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 중 정부 특혜가 있었다는 항소심 재판부 언급에 대해 압도적 점수로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 압력으로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음에도 정경유착 등 부정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법원이 곡해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결연히 대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최창원 의장은 “우리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수출 7000억 弗 고삐… 수출금융 5조 추가 ‘365조 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시중은행 수출 우대상품 2조 공급 나프타 등 올해 관세율 0% 적용

올해 7000억 달러 규모의 수출 목표치가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3일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추가(5조 원대)를 비롯해 나프타·LPG에 대한 관세율 0% 적용 등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꺼내 들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확대해 총 365조 원을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



품도 2조 원 규모로 새로 공급해, 민·관 합동의 추가 지원이 포함 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핵심 수입원 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을 낮추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전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지원을 추진한다.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와 관련해, 정부는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

를 새로 만들어 반기마다 공표한다.

해외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인 ‘제작비에 대한 내국인 출자 비중’을 30%에서 20%로 완화한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수출지원체계 효율화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서비스 가격공개 의무화·정성평가 지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각 부처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합 공고한다. 이어 수출 일반지원·전문분야 등 해외거점간 협력 업무협약(MOU)을 올해 하반기 중 체결한다.

또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으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기존 25개국에서 내년부터 30개국으로 늘린다. 숨은 규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도 수립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현대차 美법인, 지난달 판매량 12%↑

>> 1면 ‘현대차그룹, 친환경차…’서 계속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등 미국 남동부를 북미 전동화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차량·부품·배터리 등 전동화 밸류체인 확보에 나서고 있다. 2022년 55억4000만 달러(약 7조9000억원)를 투자해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착공한 HMGMA는 북미 유일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 적용 공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공급적인 방향이 전기차라는 점에서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북미 시장에서 판매량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1일(현지시각) 올해 5월 판매량이 7만8485대로, 지난해 같은 달(7만1대)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1% 줄어든 바 있다.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현지 전기차 판매량이 42% 증가한 결과다. 전년 동기 대비 아이오닉5가

82%, 아이오닉6가 13%, 투싼 하이브리드(HEV)가 54%, 싼타페 HEV가 116%, 팰리세이드가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아도 미국 시장서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5월 판매량은 7만5156대로, 전년 동기(7만1497대) 대비 5.1% 늘었다. 앞선 4월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한 바 있다. 기아가 판매량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기차 EV9의 역할이 크다. EV9은 지난달보다 39% 증가한 2187대 팔리며 역대 최고 월간 판매를 기록했다. 전체 전기차 판매 역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7% 늘어나, 7197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양성운 기자 ysw@